심화 되는 저팬 퀄리티 (3)

유력 제직 업체 7개사가 경연, 고밀도 면직물 등 풍부하게

오사카 직물 산지에서 “저팬 크리에이션(JC) 05”에 출전한 것은 오타니, 壽織物, 塔筋織布, 池藤織布, 蓮池織布, 中川織布, 辰已織布의 오사카 남부 산지 7개 제직 업체이다. 소폭 직물을 주체로 출전한 泉州 산지의 제직업이라든가 JC의 常連 제직업이 이번 전시회의 참가를 취소함으로써 출전 기업의 숫자는 감소하였으나, 의류용으로부터 침장용에 이르기까지 폭 넓은 직물을 생산하는 壽織物이 2년 만에 복귀하였다. 유력 제직업 7개사가 경연하고 있는 부츠가 된데 지나지 않았다.

면 직물 업계 최대 규모의 생산량을 과시하는 오타니는 동사의 “독자 기획에 의한 해외에서는 기술적으로 생산이 곤란한 스트레치 직물”을 중심으로 출전하였다. 특히, 스트레치성이 우수한 새로운 스트레치 소재를 사용한 직물이나 염색가공 공장과의 컬래버레이션에 의한 새로운 촉감 직물이 특매품이 될 것이다.

동사와 더불어 대형 제직 업체, 池藤 직포는 신예 직포의 적극적인 도입 등으로 하드면을 충실히 하여 큰 로트일지라도 단납기에 생산할 수 있는 동사의 특징을 어필한다. 롱 슬럽의 변화직 등의 신상품도 출전하고 고난도 직물 생산의 높은 기술력도 나타내었다.

大陸 산지 특산인 고밀도 면 직물의 풍부한 바리에이션 외에 기능 섬유 등과의 복합 소재로도 많은 독자 상품이 출전하였다.

특성을 살린 개발 상품을 발표, 시장에 대한 침투를 도모

면 크레이프를 시발로 하는 강연 직물의 高島 산지에서는 川島織布, 木村織物, 杉岡織布, 高橋織物, 增田크레이프, 駒田織布, 高麻의 제직 업체 7개사와 특수가공사 메이커인 熊谷 파이버즈가 “저팬 크리에이션(JC) 05”에 출전하였다. 출전 기업을 알리는 것은 지난 전시회와 같으나 高島織工組로서 8개사 공동으로 부츠를 구축한 지난 전시회와는 달리 高橋織物과 熊谷파이버즈가 단독으로 부츠를 전개하였다.

동 산지 제직업이 JC에서 소구하는 큰 과제의 하나가 강연 직물의 수요 진흥이다. 高橋織物은 楊柳, 보일을 기본으로 한 다양한 배리에이션을 어필. 木村織物은 라미 100%의 오리지날 요루라든가 "텐셀" 세번수의 요루, 增田크레이프는 "지금까지는 없던 크레이프"를 내 놓았다. 또, 川島織布는 전통의 "高島 축면"과 요루에 의한 이너용 소재 외에 기능 섬유에 의한 아우터용 소재, 목욕의용 소재를 제안하였다.

산업 자재용 직물을 생산하는 高麻, 駒田織布는 의류 시장 개척을 목표로 한다. 高麻는 면 태번수를 사용한 이중직이라든가 슬럽사를 다색 사용하는 등, 선염 도비 직물을 아우터용으로 제안하였다.

한편, 地多 산지는 地多織工組로서 첫회부터 8회 연속 JC 출전하고 있다. 동 직공조에서는 2003년도에 신상품의 개발을 목적으로 한 기업 그룹을 결성하고 "잔털이 적은 드레시한 직물"을 개발하였다. 2004년도에 대하여는 단독 기업에 의한 고급 목욕의 원단의 개발에 협력하여 종래품과의 대폭적인 차별화를 도모하는 생각에서 목욕용 얽힘직에 몰두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인에는 이러한 양차별화 상품을 중심으로 출전하였다. 얽힘직은 전국적으로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제한되어 있어, 면 목욕의 원단에 얽힘직을 사용한 예는 없다. 동 직공조에서는 얽힘직의 특징을 살려서 염색을 하는 등 원단만이 아니라 이차 제품도 아울러 출전, 고급 목욕의 분야에서 단숨에 침투를 도모하고 있다.

播州 선염 산지-역경을 딛고 "기력 상징", 열성과 확실한 기술력으로

태풍 23호로 큰 피해를 받은 播州 선염 산지. 특히 침수가 심했던 第一染工이 급히 출전을 하는 등 태풍의 영향은 "저팬 크리에이션(JC)"에도 미치고 있으나 가케야마, 桑村纖維, 內外織物, 丸萬商店, 丸和商事, 播州織工業協同組合의 6개사가 출전, 역경을 딛는 늠름한 모습을 보였다. 이 외에 北播磨地場産業開發機構는 石川, 尾州의 양 산지와 더불어 "산지 컬레버레이션 인 JC"의 패션 쇼에 참가하여 播州織에 의한 최신의 패션을 발표하였다.

桑村纖維에서 이번 전시회에 출전한 테마는 정확히 "기력상징". "T-400", "솔로텍스", "다우", "메릴", "다스리"를 시발로 하는 쾌적 소재를 구사한 풍부한 상품군과 "나노 가공"이라든가 "베스코트"가공을 부여한 새로운 선염 직물을 제안

하고 “선염 직물에 열성과 확실한 기술력”을 어필하고 있다.

內外織物은 기능 소재나 환경에 우수한 섬유를 사용한 상품 개발의 진전을 어필함과 더불어 현물 대응 상품을 확대하여 유저의 소로트, 단납기의 요망에 부응하고 있다.

또, 가케야마는 이중 거즈 사이에 위사를 삽입하여 3중 구조로 하는 “퍼니 거즈”와 위사의 일부를 일정 간격으로 인렬 “찢김”의 양 시리즈를 출전, 여성의 캐주얼 웨어 중심으로 침투를 도모하고 있다. 현물 상품도 확충한다.

첫 회 이래 계속 JC에 출전하여 온 정리 가공의 播州織工業協同組合은 산하의 제직 업체 8개사(岡治織物, 西角綿業, 貢織物, 小澤클로스, 藤祐纖維, 內藤織布, 후지마사織布, 加富織物)와 함께 참가. 동 협동 조합의 독자 가공 외에 각 제직 업체의 “한번 미는 상품”이 장점이 된다. 동 협동 조합의 가공으로는 잔사를 이용한 “멋대로 된” 것과 위사를 가지런하게 하지 않은 물결상이라든가 투과해 보이는 감의 표면 변화를 강조한 “크래시” 가공을 처음으로 공개한다.

三河(蒲郡), 지금 미카와에서 새로운 바람이 복합 텍스타일의 匠과 技로

三河(蒲郡) 산지의 이벤트는 10월에 행해진 “텍스비전 2004 미카와”이다. 더욱이 2005년 1월은 항례로 되어 있는 “하임 텍스타일”전에도 출품하였다. 2005년 2월에는 “국제 기프트 쇼”에 대한 참여까지 결정하고 있다. JC 2005의 三河(蒲郡) 산지 관계의 출전은 텍스타일 원산인 小森, 森菊, 森重實業, 松坂, 후타키인테리어 5개사가 출전하여, 3부츠를 5개사에서 공동 부츠로 연출하였다.

각 회사는 각각 행거 래그 1개를 주고 여기에 각사별로 스와치를 장식, 1개의 행거 래그에는 약 100점을 제안할 수 있으나, 각사에 따라서 제안 점수는 50 100점으로 편차가 있다.

三河纖維産業 商業開發硏究會의 명칭으로 출전하는데, 이러한 조직으로 보조사업의 대상이 되는 것은 하임전과 국내 기프트 쇼만으로 JC 2005에서는 이미 출전자 스스로 출전만으로 각사 모두 주력하고 있다.

새로운 파트너를 구하고 또는 판로 개척에 대한 엑세스를 하고 또, JC 2005 각 산지 출전 업자와의 켈레버레이션도 염두에 두고 있다. 그 고장, 염색이 굳센

鈴寅은 JC 2005에는 출전하지는 않았으나, “저팬 텍스”에 부츠를 신설 영업하고 하임전에도 부츠를 만들 예정이다. “단섬유, 장섬유를 포함하여 텍스타일의 기법을 보고 싶은”(어떤 출전자) 외에 패션 의류 텍스타일, 인테리어 커튼 텍스타일 더욱이 생활 관련한 “천”에 대하여 구애되는 등 다양한 라인업을 보여주는 듯하다.

太田忠宏, 蒲郡商工會議所의 부회장은 “올 三河(蒲郡)의 정보 발신형 텍스타일과 `메이드 인 가마고리'를 발신함으로써 산지에 새로운 숨결을 주고 싶다. 또 한 가지는 토탈 산지의 강점, 미들 스트림 3업종의 결속력도 보여주는 것이 산지 융기로 이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 미카와로부터 새로운 바람이. 이것은 텍스비전 2004의 미카와의 테마 컨셉이었다. JC 2005에도 “지금”, 미카와로부터 새로운 바람이 불어 오는듯하다.

遠州(浜松) - 큰 블록에 주목, “자립화 사업”으로 제직업의 증가

靜岡縣 섬유협회로서 2개의 블록에 집약하여 16기업, 단체가 19부츠에서 제안하여 산지 관계 출전으로 큰 블록 만들기는 전번의 2004에 이어서 강도가 높은 코너가 되었다. JC 2005 출전 기업(단체)에 대하여 살펴 보면, 이번 전시전은 제직업의 단독 출전이 눈에 띠는 반면 여맥 가공 공장과 원산 등의 기업의 사퇴조가 눈에 띤다. 특히, 大和染工, 鈴六染工, 今枝染工이라고 하는 常連組의 사퇴, 또 東海染工 浜松도 그러하다. 이러한 이탈리아조는 “05년 하마마쓰 콜렉션”에 참가를 결정하고 있다. 산원도 상련조가 JC에 출전하지 않으나 2005년 5월의 하마마쓰 콜렉션의 참가를 결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번 전시회에서 제직업의 참가가 많은 것은 하나로는 경제 산업성의 제안하고 있는 “자립화 사업”에 자극되고 있는 측면이 크다. 구체적으로는 福田, 天龍社 산지의 丸音織物, 福田織物의 2개사는 2004년도의 자립화 사업에서 인가된 기업이다.

丸好第二坂織物, 榛地織物, 杉浦텍스타일, 古橋페밀리즈(이상 遠州織 관내)는 여기에 수차에 걸쳐서 출전하고 있고 그만큼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福田, 天龍社 산지로부터 遠州네트 아보트마인드 등도 출전하였다.

염색 가공에서는 日本形染만이 1개사가 출전하였다. 이 기업은 지금 “염색”이

라고 하는 소로트 단사이클로 염색하는 미니 가공 공장을 병설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리테일러 비즈니스도 포함하여 이러한 미니 가공 공장의 고지, PR도 하나의 출전에 대한 의의라고 위치 부여하고 있다.

“단순히 날염의 고지, PR에 그치지 않고 日本形染이 미들 스트림, 다운 스트림에 대한 협력이나 컬레버레이션이 어디까지 소구할 수 있을까의 시금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 회사 秋野富司 사장의 말이다.

산원의 출전은 成和第一産業과 明和織物의 2개사이다. 또 하나 주목하고 싶은 것이 木夏本의 텍스타일 사업부가 2부츠로 제안, 텍스타일 컨버터를 자인하고 단섬유, 장섬유, 국내 산지와 모든 면에서 제휴하여 일본 텍스타일 집대성을 보고 싶다고 의욕적이다.

제직업의 참가가 늘어나 산원이나 가공 공장이 적은 것은 약간 슬픈감이 있으나 모든 遠州(浜松)가 당당히 프리젠테이션하는 이러한 블럭은 꼭 보아야 하는 가치이다.

(다음에 계속)